

만해 스님의 색다른 초상화 전시  
3월 10일까지 명인박물관서



선사자 독립투사,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을 동양화로 그린 일제강점기 시대의 초상화(사진)가 선을 보였다.

명인컬렉션 대표 이무웅은 2월 1일~3월 10일 서울 가회동 명인박물관에서 '근대유화 특별전'을 열고 만해 스님과 유관순, 최시형 천도교 교주,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비롯한 조선시대 및 근대유화를 전시중이다.

기존의 만해 스님상과 얼굴 모습과 표정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이번 '만해 초상화'에 대해 명인박물관 이무웅 관장은 "낙관 및 도장이 없어 정확한 작가를 알 수 없지만 기법으로 볼 때 당대 초상화의 대가였던 최석지 선생의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02)766-0272

김성우 기자

'해동 유마' 완당 거사의 삶 조명 행사 잇따라  
유홍준 前문화재청장·한승원 소설가, 추사의 구도예술 소개

김정희의, 삶 자체가 구도의 여정

'난초 그리지 않은 지 20년, 우연히 그랬더니 하늘의 본성이 드러났네/ 문 닫고 찾으며 또 찾은 곳/ 이것이 유마의 불이선(不二禪)일지/ 만약 누군가 억지로 (그림을) 요구한다면, 마땅히 유마 거사의 말 없는 대답으로 거절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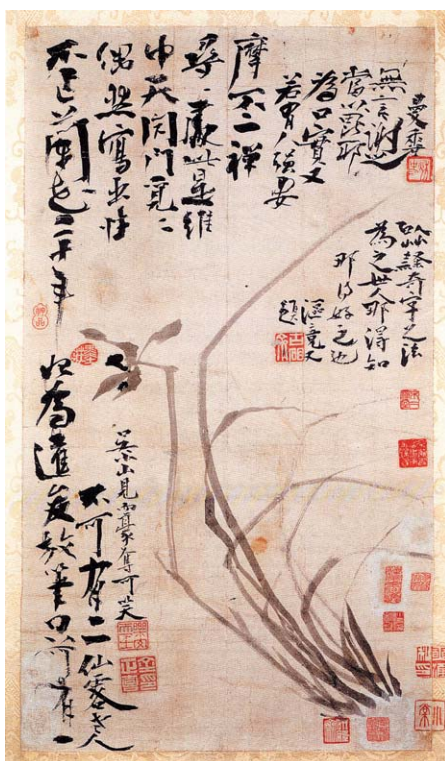
완당 거사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걸작 난초그림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에 적힌 글이다. 완당은 이 글에서 서도(書道)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대승불교의 대표적 각자(覺者)로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능가하는 유마 거사에 비유하고 있다.

이처럼 서도가 극치에 이르러 '그림이 곧 완당이요 완당이 곧 그림'인 불이(不二)의 경계에 들게 된다. '서화의 이치가 곧 불교의 선(禪)과 통한다'고 했던 완당은 서선일여(書禪一如)의 경지를 마침내 일구었고, 그 성취에 스스로 놀라워했던 셈이다.

'해동의 유마'라 불릴 만큼 선에 대한 안목이 높았던 완당 거사, 다성(漆聖) 조의 선사와 교분을 나누고 조선 후기 사상계와 예술계를 풍미한 추사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 문화행사가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불은사에서 잇따라 열렸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월의 포럼 주제로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을 정하고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명지대 교수)을 초청, 2월 3일 우리함께빌딩 선우법당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유홍준 교수는 조선 후기 문화를 일신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초의 선사와 막역한 관계로 지내고 말년



완당 거사의 선사상이 엮보이는 '불이선란도'(추사근씨 소장)

에는 불은사에 기거하며 선지식 대접을 받았던 완당과 불교와의 인연도 함께 소개했다. 유 교수는

"글씨의 묘(妙)를 참으로 깨달은 서예가란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다"면서 "70명생에 베풀 10개를 밀창 넣고 붓 일천 자루를 몽당뭇으로 만드는 엄청난 노력으로 독창적인 추사체를 완성한 완당이야말로 진정 입고출신(入古出新: 옛 것을 소화해 새 것을 창조함)을 감당할 수 있는 당대 동양 최고의 서예가였다"고 소개했다.

한편 서울 불은사는 2월 4일 보우당에서 소설가 한승원씨를 초청, 완당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 <추사>의 낭독회를 개최했다. 소설 <추사>는 한승원씨가 추사의 발걸음을 뒤쫓고 그의 삶과 예술, 구도행을 통해 인간존재의 근원을 탐구한 장편소설이다.

한승원씨는 "추사는 50대 후반부터 제주도 유배 9년, 북청 유배 2년의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끊임 없이 욕망을 버리며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 쓰는 일에만 전념해 마침내 '글씨가 시이고, 시가 그림'인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했다. 제주도에서 완성된 문인화의 최고봉 '세한도(歲寒圖)'에 그려진 늙은 소나무 아래 집 한 채에 대해 '그 집은 마음을 하얗게 비운 유마 거사처럼 사는 한 외로운(마음이 空寂한) 사람의 집'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한 씨는 "추사에게 있어 시 짓고 글씨 쓰고 난초 치는 일은 몸과 마음에 얽혀 있는 탐욕과 오만과 조급성을 모두 털어버리고 가을 호수처럼 맑은 선정에 드는 일이었다"며 완당의 삶 자체가 구도의 여정이었음을 암시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불교사진전, 청소년디지털사진 공모전  
봉축위와 공동으로 3월 31일까지

한국불교사진협회(회장 조현숙)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공동으로 제3회 청소년디지털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는 불자들의 신행,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 법회 등 불교적인 소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0점 이내 응모가 가능하며 홈페이지(www.buddha-photo.org)에서 3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시상식은 4월 13일 오후 6시 서울 예총회관 갤러리에서

한암예술단, 창작뮤지컬 '백설공주'  
한암아트홀에서 제6회 정기 공연

어린이 불교 연극단체인 천안 한암사주지 원(원) 한암예술단이 2월 22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에 걸쳐 한암사 내 한암아트홀에서 제6회 정기 공연을 갖는다.

이번 무대에 올릴 창작 뮤지컬 '백설공주'는 원철 스님이 2005년 2월 창단한 한암예술단이 올해 처음으로 여는 무대다. 원철 스님이 극본 및 작사를, 임용호씨가 작곡을, 차경희씨가 연출을, 김소진·박혜진씨가 안무를 각각 맡는다. 원철 스님은 "인간의 욕망이 부셔질 때 보다 성숙해지는 만큼 관객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불교적 시각으로 본 '깨어짐의 미학'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교사상이 내포된 연극 및 뮤지컬 교육을 위해 조계종 최초로 창단된 한암예술단은 40여 단원들이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 뮤지컬 공연, 국악공연 등을 무료로 실시하며 미래 불자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041)592-4747

김성우 기자



한국 독립영화 사상 최대 기록인 10만 관객을 돌파한 '워낭소리'의 한 장면. 주인공은 최원국 할아버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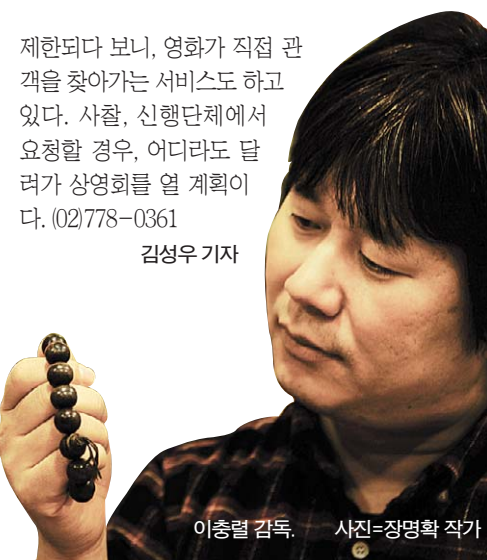
이충렬 불자감독의 '워낭소리' 세대 막론 '눈물바다'  
심우도 주인공이 된 할배와 소의 말없는 법문

이충렬(43) 불자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가 세대를 초월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워낭소리'는 2월 3일 개봉 20일 만에 한국독립영화 사상 최대 기록인 10만 관객을 돌파하고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입소문으로 영화 상영관이 40개관까지 늘며 관객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진정성이 어떤 극영화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공감대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영화의 스토리가 노년 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까지 눈물지게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든에 가까운 할아버지 농부와 그의 부인이 30년을 키워 온 마흔 살 된 늙은 소의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 늙음과 이별을 그린다. 주 관객층은 농촌 향수를 지닌 30~40대이지만, 남녀노소 전 연령층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년 동안 경북 봉화의 산골 하남마을에서 절제와 기다림으로 주인공들을 카메라에 담아낸 이충렬 감독은 "전남 영암, 고향마을 절에서 매일 아침을 위해 불공을 올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본성(本性)을 찾아 나선 심우도(壽牛圖) 속 주인공처럼 욕심 내지 않고 조금씩 하지 않으면서 작업에 임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작비가 부족해 조계종 총무원에 지원을 청했지만 퇴짜를 맞아 카메라 두 대로 지루한 촬영에 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신 '기다림'과 '느림'의 의미를 배우고 '떨어내는' 연습도 할 수 있었다고 오히려 감사히 여겼다. 이 감독은 "기회가 닿는다면 바리암아 설해부처럼 불교의 정적인 정서속에서 일상과 내면을 말없이 그려내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2008년 부산국제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을 받은 '워낭소리'는 극장이



이충렬 감독. 사진=정명혁 작가

열린선원 새봄맞이 불사안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자장거리포교원인 저희 열린선원의 새봄맞이 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인연 있는 사부대중의 무무동참을 기원합니다

동안거 업장소멸 지장기도 회향 법회

3개월간의 지장기도를 회향하는 법회를 한글법요집에 따라 불자님들과 함께 마무리하며 법현스님의 법문도 함께합니다.

- ◆ 때 : 2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 ◆ 내 용 : 지장기도 회향 ◆ 동참대상 : 기도입재자 및 기도법 배우고 싶은 이 누구나

새봄(立春)맞이 우리부처님 씻어드리기(浴佛)법회

- ◆ 때 : 2월 21일(토) 오후 2시 ~ 오후 6시
  - ◆ 내 용 : 3존불 및 가족 원불 목욕 후 불공 ◆ 동참대상 : 누구나
- 새봄을 맞이하여 작년처럼 원불부처님에 얹은 먼지를 모두 동참한 불자들이 직접 털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불공을 드립니다. 열린선원에서는 이날 입춘첩을 나눠드립니다.

제11기 열린선불교아카데미(4개월 과정) 개강

- ◆ 기 간 : 3월 7일(토) ~ 6월 20일 (강의시간 토요일 오후 3시 30 ~ 오후 5시 30)
- ◆ 내 용 : 부처님의 생애, 불교기초교리, 불교의 수행법, 템플스테이, 수계 [6월 6일 ~ 7일 1박 2일 템플스테이 예정]
- ◆ 강 사 : 법현스님과 훌륭한 스님 및 법사님
- ◆ 교육준비비 : 10만원 (템플스테이 포함)
- ◆ 동참대상 :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을 걷고 싶은 이

열린선원의 새벽예불은 새벽 5시에 봉행합니다

- ◆ 위 치 : 서울 은평구 갈현동(6호선 구산역 뒤) 역촌중앙시장 2층
- ◆ 전 화 : 02)386-4755, 4720
- ◆ 인터넷 : http://cafe.daum.net/buruna21 www.opentemple.or.kr

한국불교대학교 열린선원 원장 법현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김성우 기자

제70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3월 11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3월 12일 오후 5시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입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